

# 벤츠, 투 도어 오픈카 'CLE 카브리올레' 새 모델 출시

### CLE 200·CLE 450 4MATIC 2개 라인업...캐릭터 라인 강화 3세대 MBUX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화상회의·게임 서비스 지원

벤츠가 대표적인 '투 도어' 오픈카인 CLE 카브리올레의 새로운 모델을 선보인다. 신형 CLE 카브리올레는 벤츠가 가진 쿠페 모델의 최신 기술과 역동적인 주행 성능, 개방감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모델이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24일 "디올-뉴 메르세데스-벤츠 CLE 카브리올레 (The all-new Mercedes-Benz CLE Cabriolet)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국내에는 'CLE 200 카브리올레'와 'CLE 450 4MATIC 카브리올레' 2개 라인업을 출시한다. 신형 CLE 카브리올레는 검정색 소프트 톱이 기본 적용됐으며, 긴 전장과 휠베이스, 낮은 전고, 짧은 오버행으로 스포티한 비율과 측면의 강렬한 캐릭터 라인을 강화했다.

소프트 톱은 다층구조로 단열 효과가 높아 사계절 내내 실내 온도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며, 외부 바람과 소음도 줄여준다. 최대 시속 60km의 주행 중에도 20초 이내에 소프트 톱을 열고 닫을 수 있으며, 전자식 작동으로 소음이 적은 게 특징이다.

CLE 카브리올레는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톱을 열고도 쾌적한 주행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많다고

벤츠는 설명했다. 먼저 '에어캡'은 앞유리 상단과 헤드레스트 뒤에 위치한 윈드 디플렉터로 공기 흐름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공기 막을 형성해 외풍이 운전자를 방해하거나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또 '에어스카프'는 헤드레스트 하단부에서 따뜻한 바람을 내보내 추운 날씨에도 탑승자의 목과 머리를 따뜻하게 감싸준다.

인테리어에서는 11.9인치 세로형 LCD 중앙 디스플레이가 각도를 15도에서 40도까지 기울일 수 있도록 설계돼, 주행 중에도 빛 반사를 줄여 운전자의 눈부심을 방지한다.

추가 옵션으로 제공되는 가죽 시트는 근적외선을 방사하는 특수 코팅처리가 돼, 높은 외부 기온에 대비해 실내 온도를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여름철에도 일반 가죽 시트보다 실내 체감 온도를 최대 12도까지 낮게 유지할 수 있다. 신형 CLE 카브리올레는 2865mm 휠베이스로 안락한 실내 공간을 선사한다. 특히 이전 C-클래스 카브리올레보다 뒷좌석 무릎 공간은 72mm, 어깨와 팔꿈치 공간은 19mm 늘어 2열 공간 효율은 높였다. 트렁크



용량은 385L로 뒷좌석 등받이를 접으면 더욱 넓게 활용할 수 있다.

CLE 카브리올레는 3세대 MBUX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적용해, 실시간 교통정보 기반의 내비게이션 등 자동화된 차량 설정을 지원한다. CLE 450 4MATIC 카브리올레의 경우, 화상회의,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도 사용이 가능하다.

CLE 200 카브리올레에는 직렬 4기통, CLE 450 4MATIC 카브리올레에는 6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이 탑재되며, 9단 변속기가 들어갔다.

CLE 200 카브리올레는 최고 출력 204마력, 최대 토크 32.6kgf·m, CLE 450 4MATIC 카브리올레는 최고 출력 381마력, 최대 토크 51 kgf·m의 성능을 발휘한다.

여기에 두 모델 모두 48V 온보드 전기 시스템을



벤츠가 최근 출시한 쿠페형 오픈카 '디올-뉴 메르세데스-벤츠 CLE 200 카브리올레'의 온라인 익스플루시브 모델 외관(오른쪽)과 내관.

갖춘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 신속한 엔진 시동과 회생제동 등을 제공한다.

또 두 모델 모두 제공해 차량 2중 인증을 획득했다. 마케팅 및 디지털 비즈니스 부문 총괄 킬리안 텔렌 부사장은 "스포티함과 클래식함이 조화를 이룬 디자인, 다이내믹한 주행 성능, 최신 기술력이 합쳐져 메르세데스-벤츠 오픈톱 드라이브의 전통을 이어가는 모델"이라며 "오픈카의 계절을 맞아, 럭셔리

하면서도 탁월한 개방감을 원하시는 고객분들께 완벽한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CLE 카브리올레 출시를 기념해 온라인 세일즈 플랫폼인 메르세데스-벤츠 스토어에서 레드 컬러 소프트 톱과 그레이 솔리드 외장 컬러가 조화된 '디올-뉴 CLE 200 카브리올레 온라인 익스플루시브' 15대를 한정 판매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파이크스 피크 힐클라임'을 주행하는 '아이오닉 5 N TA Spec'

<현대차 제공>

## 현대차 미국 '파이크스 피크 힐클라임' 대회 전기차 최고 기록

### 차량 성능·내구성·안정성 입증

현대자동차는 24일 "미국 콜로라도에서 열린 '파이크스 피크 힐클라임'에 출전해 양산형 전기차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구름 위의 레이스'라고 불리는 '파이크스 피크 힐클라임'은 로키산맥 파이크스 피크 봉우리를 오르내리는 등 퍼포먼스를 요구하는 대회다.

대회는 해발 2862m에서 시작해 4302m 결승선까지 총 길이 19.99km의 오르막 구간으로, 총 156개의 코너로 인해 차량 성능과 내구성, 안정성이

필요한 높은 난이도를 자랑한다.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아이오닉 5 N'을 활용해 이번 대회에 참가했다. 현대차는 차량 개조를 통해 험난한 레이스에 최적화 된 '아이오닉 5 N TA Spec' 차량을 선보였다. 아이오닉 5 N TA Spec은 기존 양산차량과 동일한 고용량 배터리와 고출력 모터 시스템이 탑재됐는데, 소프트웨어 변경을 통해 출력을 687마력까지 끌어 올렸다.

또한 충격 흡수 장치, 18인치 슬릭 타이어, 공기역학성 강화 설계 등 모터스포츠 전용 패키지로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레이스를 펼칠 수 있는 환경

을 제공했다. 아이오닉 5 N TA Spec은 첫 출진 임에도 불구하고 9분 30.852초를 기록, 종전 양산형 전기차 개조 차량 세단 최고 기록인 9분 54.901초를 경신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유서 깊은 '파이크스 피크 힐클라임'에 참가해 아이오닉 5 N의 우수한 성능을 선보일 수 있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모터스포츠 활동을 통해 N 브랜드의 기술력을 알리고 이를 통한 기술 개발로 고객들이 원하는 차량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독일 뉘르부르크링

### 제네시스 트랙 택시

### '노르트슐라이페' 달린다

제네시스가 24일 "독일 뉘르부르크링에서 '제네시스 트랙 택시 노르트슐라이페(Nordschleife)' (사진)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제네시스 트랙 택시는 드라이빙 트랙에서 전문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차량에 일반 고객이 동승해, 다양한 주행 조건과 극한의 성능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제네시스 트랙 택시 노르트슐라이페는 차량 1대당 최대 3명의 승객이 함께 탑승해 20.8km 길이의 뉘르부르크링 트랙을 약 8분에서 10분안에 고속 주행한다. 제네시스 '마그마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제네시스는 G70 3.3T를 고성능으로 튜닝해, 탁월한 주행 안정성과 정밀한 핸들링을 자랑한다. 최고출력은 370마력, 최대토크 510Nm, 최고속도는 시속 270km다.



제네시스 관계자는 "제네시스 트랙 택시 노르트슐라이페"는 제네시스 고성능 모델을 제공하기 위한 여정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이

번 프로그램을 통해 얻을 고객 경험이 제네시스 성능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어린이용 카시트 안전기준 대폭 강화

### 사고시 충격 측정부위 3→30곳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에 탑승한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어린이용 카시트의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4일 "안전인증 대상 어린이 제품의 안전기준" 개정안을 오는 8월 16일까지 행정예고하고 개인·기업·단체 등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9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유엔 등 국제사회의 강화된 기준과 국내 산업 환경에 맞춰 국내 기준을 전면 정비했다.

개정안은 먼저 카시트 사용 대상 기준과 사이즈 분류 기준을 기존 '몸무게 36kg 이하'인 신생아·유아·어린이에서 '신장 40~150cm 이하'로 바꾸고,

휴대용 유아 침대 고정 장치 및 휴대용 요람에 대한 기준 등을 신설했다.

카시트 안전성 검증을 위한 자동차 충돌 시험에는 기존의 전방·후방 충돌 시험에 더해 측면 충돌 시험을 새로 추가했다.

국내에 존재하는 2점식 퇴감기식 안전벨트용 카시트에 대한 안전기준도 신설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2점식 고정식 안전벨트 외에 국내에서 통용되는 퇴감기식 안전벨트의 경우 충격이 가해졌을 때 카시트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카시트가 흔들리지 않고 잘 고정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카시트 안전성 검증 시험에 사용하는 카시트 착용용 어린이 더미(인체모형)는 기존 P-더미에서 최신식 Q-더미로 바뀐다. /연합뉴스



솔라이트 인디고 레이싱팀의 박준(가운데)이 3라운드 포디엄을 달성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 금호타이어 '이노뷔' 장착 레이싱카 우승

### 현대N페스티벌 eN1 3·4라운드

금호타이어의 전기차 전용 레이싱 타이어 이노뷔(EnnoV)를 장착한 레이싱카가 우승을 차지했다.

금호타이어는 24일 "지난 22-23일 영암군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KIC)에서 열린 현대N페스티벌 eN1에서 솔라이트 인디고 레이싱팀의 박준의, DCT 레이싱팀의 김규민이 각각 3, 4라운드 우승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eN1 클래스는 국내 최대 규모의 단일 차종 레이스인 '현대 N 페스티벌'의 전기차 레이스다. 국내 최초 전기차 레이스임과

동시에 전세계 최초로 레이싱 전용 슬릭타이어를 적용한 전기차 레이스로 주목받았다.

특히 대회 3라운드 1-6위를 차지한 선수들 모두 금호타이어 이노뷔 '웨트' (wet) 타이어를 장착하고 최고의 성적을 거뒀다. 3라운드 우승을 차지한 박준의는 "eN1 클래스 개막전에 이어 3라운드에 서도 포디엄 정상에 설 수 있어 무척 기쁘다"며 "이날 경기가 폭우 속에 치러져 빗길 주행능력과 타이어의 성능이 무엇보다 중요했는데 금호타이어 이노뷔 타이어 때문에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었다"며 소감을 전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 SNS 앰배서더 '기아 큐레이터' 2기 모집

기아가 24일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SNS 앰배서더인 '기아 큐레이터' 2기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아 큐레이터는 젊은 세대와의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마케팅 중 하나다. 선발된 기아 큐레이터는 기아의 모빌리티 기술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홍보대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기아 큐레이터 2기는 운전면허를 보유한 만 26~35세 유튜브 크리에이터 또는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라면 누구나 기아 공식 인스타그램·홈페이지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지원 가능하다.

모집 기간은 오는 7월8일까지로, 심사를 통해 선발된 16명의 기아 큐레이터들은 7월 27일부터 10월 18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기아는 큐레이터에게 전기차 시승 기회와 활동비, 앰배서더 웰컴 키트, 브랜드 한정판 굿즈도 지원하며, 다양한 체험공간에 초청해 콘텐츠 제작 기회를 제공한다.

기아 관계자는 "기아 큐레이터는 여행, 스포츠 등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로 전기차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